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 옥 경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정서인식명확성 및 정서강도와
공감의 관계

2008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박 혜 영

정서인식명확성 및 정서강도와
공감의 관계

이 옥 경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박 혜 영

인 준 서

박혜영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연령과 성별에 따른 정서인식명확성, 정서강도와 공감의 정도를 알아보고,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강도의 고저에 따른 공감 수준의 정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정서경험 군집별로 공감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시와 경기도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220명과 서울시와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년의 남녀 166명이었다. 정서인식명확성은 특질상위기분척도(Trait Meta-Mood Scale; TMMS)와 기분인식척도(Mood Awareness Scale; MAS)로 측정하였고, 정서강도는 정서강도척도(Affect Intensity Measures; AIM), 공감은 대인관계 반응지수(Interpersonal Reaction Index; IRI)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감의 하위요인 중 관점취하기와 상상하기에서 연령차가 나타났고, 청년집단이 중년집단보다 높은 공감 수준을 보였다. 연령집단 별 성차도 나타났고, 청년집단과 중년집단 모두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공감 수준을 보였다. 둘째, 정서인식명확성은 관점취하기와 정적 상관을 보였고, 정서강도는 상상하기와 공감적 관심, 개인적 고통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공감의 하위요인 중 개인적 고통은 정서인식명확성과 부적 상관을 보인 반면, 정서강도와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셋째, 공감의 하위요인 중 관점취하기는 청년과 중년집단 모두 정서인식명확성의 주효과가 관찰되었고, 상상하기는 정서강도의 주효과가 관찰되었다. 개인적 고통은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강도의 각각의 주효과가 확인되었다. 넷째,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강도의 평균에 따라 열정, 침착, 압도, 냉담집단으로 정서경험

군집을 나누었다. 청년과 중년집단에서 공감 및 하위요인의 군집별 차이를 알아본 결과,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열정집단은 관점취하기, 상상하기, 공감적 관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고, 개인적 고통에서는 압도집단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결과들을 논의하고,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이론적 배경	4
1) 정서인식명확성	4
2) 정서강도	7
3) 공감	9
4) 정서경험의 개인차변인으로서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강도 ...	12
5) 정서인식명확성, 정서강도, 공감의 연령차와 성차	14
II. 연구문제 및 가설	16
III. 연구방법	18
1. 연구대상 및 절차	18
2. 측정도구	18
3. 자료분석	22
IV. 결 과	23
V. 논 의	40

참고문헌

Abstract

부 록

표 목차

<표 1> 연령에 따른 정서인식명확성, 정서강도, 공감의 차이	24
<표 2> 청년집단의 성별에 따른 정서인식명확성, 정서강도, 공감의 차이	26
<표 3> 중년집단의 성별에 따른 정서인식명확성, 정서강도, 공감의 차이	26
<표 4> 주요변인 간 상관	28
<표 5> 청년, 중년집단의 군집의 빈도 및 정서인식명확성, 정서강도의 평균	29
<표 6> 청년과 중년집단의 정서경험 군집 별 성별 분포	30
<표 7> 청년집단의 정서경험 군집에 따른 공감 및 하위요인의 차이	33
<표 8> 중년집단의 정서경험 군집에 따른 공감 하위요인의 차이	34
<표 9> 청년의 정서인식명확성 및 정서강도에 따른 공감 및 하위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36
<표 10> 청년의 정서인식명확성 및 정서강도에 따른 공감 및 하위 요인의 이원변량 분석 결과	37
<표 11> 중년의 정서인식명확성 및 정서강도에 따른 공감 및 하위 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38
<표 12> 중년의 정서인식명확성 및 정서강도에 따른 공감 및 하위 요인의 이원변량분석 결과	39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공감은 이타행동을 유발하는 중요한 정서 기제로 알려져 있고, 공격성이나 반사회적 행동의 감소를 가져오게 하는 요인으로 밝혀진 바 있다 (Redmond, 1989; 박성희, 1996). 또한 타인이 처한 입장이나 정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은 개인의 적응과 대인관계에서 높은 적응적 가치를 갖는다(Duan, 1996). 공감을 잘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사회적 적응력이 높고, 민감하며,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대인지각이 정확하며, 자신의 동기와 행동에 대한 통찰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Grief & Hogan, 1973).

공감은 학자마다 강조하고 있는 구성요소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Rogers(1957)는 공감이란 타인의 감정이나 심리 상태, 또는 경험을 마치 나의 것처럼 느끼는 것으로써 타인의 내적 경험을 매순간 함께 느끼고 인지하는 능력에 기초를 두는 정신내적 현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Hoffman(1984)은 공감은 자기의 상황에 부합하기보다 타인이 처한 상황에 부합하는 정서반응이라고 하면서 공감을 인지적, 정서적 과정의 상호작용에 의한 발달로 보았다.

공감을 성격특성 또는 일반적인 능력으로 간주하는 연구자들은(Hogan, 1969; Iannotti, 1985; Mackay, 1990) 공감이 개인의 본성이건, 발달해 온 것이건 간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공감적이라고 여긴다. 이러한 개념은 공감능력의 개인차를 알아보는 연구로 발전되어 왔다.

공감능력의 개인차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들은 인지양식·성격유형·정서양식과 변인들과 공감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는데, 인지적 복잡성과 정서적 복잡성은 공감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고(양근원, 2004; Lutwak & Hennessy, 1982), Huth(1979)는 개인의 인지양식인 장의존성이 공감과 정적인 상관이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이렇듯 공감과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들은 주로 공감의 인지적 요소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이루어져오고 있고, 개인의 심리적 특성 또한 인지적 특성에 그 초점이 맞춰져 왔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알아내는데 훨씬 능숙한가 하면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경험하는 정서가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다. 또한 같은 선행사건을 경험하더라도 매우 강렬하게 정서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어떤 이들은 매우 약하게 정서를 경험하기도 한다. Gohm(2003)은 정서경험의 개인차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개인이 정서를 경험하는데 상이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와 관련된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는 개인의 적응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정서인식의 명확성도 중요하지만, 정서인식명확성과 함께 정서의 강도를 고려하는 것이 정서경험의 개인차를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개인의 정서경험과 공감과의 연관성을 다루는 연구가 존재하는데 연구결과들은 개인의 정서경험 특성들과 공감이 유의미한 상관을 갖고 있음을 알려준다. 불안과 회피는 공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특히 회피는 공감능력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한다(Trusty & Watt, 2003). 또한 정서를 강하게 경험하는 사람일수록 공감을 잘하며(박인조, 김방실, 이양, 2002), 상위기분의 하위요소인 정서인식

명확성과 공감의 유의미한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주, 2005).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정서인식명확성이 높고, 정서를 강하게 경험하는 개인들이 타인의 정서나 심리적 상태에 공감을 잘 할 것이라는 추론을 할 수 있다.

공감을 잘하는 개인의 정서적 특징의 상관을 살펴본 연구와 정서경험 개인차에 관한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공감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정서적 특성으로써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정서의 강도를 함께 고려하는 것은 공감능력의 개인차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감을 잘 하는 개인의 정서적인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정서경험의 개인차 변인인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강도가 공감능력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또한 성인초기와 중기에 속하는 청년집단과 중년집단 간에 정서인식명확성, 정서강도, 공감능력에 있어서 연령차와 성차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전 생애 발달적 관점으로 볼 때 상이한 발달 단계에 속하는 두 집단의 공감능력과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강도의 영향이 연령에 따라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정서인식명확성 (emotional clarity)

일상생활 속에서 특정 정서를 경험했을 때, 자신의 정서 상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표현하며 적절히 대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와 반대로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정서가 무엇인지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고 경험하는 정서가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정서인식명확성은 구체적인 정서를 인식하고 구별하고, 설명하는 능력으로서 정서를 이해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Salovey와 Mayer(1990)는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평가하고 인식하는 이 능력을 정서지능의 하위요소로 보았다.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덜 우울해하고, 정서인식명확성이 낮은 사람은 신경증, 스트레스 취약성 및 정서표현 갈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조성은, 2005 재인용). 반면에 자신의 정서를 명확히 인식하는 개인은 적극적으로 사회적 지지를 구하며, 자존감이 높고 사회적인 불안이나 신경증이 덜하고 보편적인 삶의 만족도를 크게 표현하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한다. 또한 자율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더 많이 경험하고, 높은 자존감을 보이는데, 정서인식명확성은 부정적인 정서 뒤에 따르는 반추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자율적이고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상태를 가져온다고 보고 있다(Swinkels & Guiliano, 1995). 또한 정서인식명확성은 부정적인 기분을 개선할 수 있다는 믿음과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며, 긍정적인 정서 경험빈도와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고, 부정적인 정서경험 빈도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Emmons & Colby 1994).

또한 정서이해능력은 유아가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신의 정서를 잘 이해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뛰어난 유아 및 아동들은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또래들에게도 비교적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친사회적 행동을 하고 타인과의 상호작용도 잘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Casey & Schlosser, 1994). 최요원과 이수정(2004)은 정서인식의 개인차가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 본 결과, 적응적인 지표인 행복은 정서 명명화와 높은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규정지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행복감을 더 많이 경험하고 정서적으로 더 적응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결과이다. 또한 이은순(1998)의 연구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정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파악하게 될 때, 적절하게 자신의 정서에 반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자신의 정서를 보다 잘 표현하게 된다고 하였다.

정서인식명확성은 사회적·정서적 능력의 발달에 도움이 되고, 문제해결을 촉진시킨다. 어떤 사건이나 대인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서를 경험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은 효과적인 적응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정서를 정확하게 지각하고 반응하는 능력은 사회적 적응과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사회적 정보처리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Ekman, 1988; Siegman & Feldstein, 1987). 자기와 타인의 정서 상태에 대한 이해는 유아 및 아동들의 사회적 유능성과 대인간 문제해결능력에도 관련된다는 점에서도 학자들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김경희, 황혜정, 1999; Hyghes, Sawin & Tingle, 1981). 타인의 감정을 정확히 추론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분을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선행되어야 한다.(이주일, 민경환, 1996). 따라

서 정서인식의 명확성이 떨어지는 개인의 경우, 타인의 정서에 대해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 부적절한 반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 속에서 부적응을 경험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이처럼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를 정확히 인식하고 관리하는 능력은 타인의 정서를 추론하는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인의 심리적 적응과 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정서인식명확성이 낮고 자신의 정서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은 정서를 유발하는 상황 속에서 적절한 반응을 찾아내는 것을 어려워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개인들은 예상치 못한, 종종 문제를 야기 시키기도 하는 정서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기분을 숨기고 축소시키려 한다. 반면에, 정서인식명확성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과 상대방의 정서를 정확히 명명해 낼 수 있고, 어떤 정서를 경험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정서를 민감하게 재인해 낼 수 있다. (김수안, 2005; Ghom, 1999)

공감지수가 높은 집단이 정서 자극 유형에 적절한 주관적 정서경험을 보고한다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정봉교, 김지연, 2006), 공감수준이 높은 개인들이 자신의 정서반응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공감을 잘 하는 사람은 타인의 정서반응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서 반응에도 민감하다고 한다(Batson, Sager, Garst, Kang, Rubchinsky, & Dawson, 1997; Eisenberg, 1986). 상위기분과 공감의 관계를 살펴 본 김현주(2005)의 연구에서는 정서인식명확성과 자기 자신이 보고한 공감능력 간의 관계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정서인식명확성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며 경험하는 정서와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따라서 정서인식명확성은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정서를 마

치 자신이 느끼는 것처럼 경험하는 능력인 공감과 관련성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2) 정서 강도 (emotional intensity)

정서강도는 개인이 정서를 경험하는 크기와 관련된다. 정서가 유발되는 같은 상황에서도 정서를 체험하는 정도가 개개인마다 다르다. Larsen 과 Diener(1987)는 정서 강도를 이용하여 유기체의 반응성 및 다양성을 측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서 강도의 수준은 유기체가 정서를 경험하는 정도를 나타내 주는 특성으로써 이용 가능 하였는데, 정서의 범주나 자극의 종류에 따라 변화되지 않는 일관적인 양상을 보여 주었다(이주일, 황석현, 한정원, 민경환, 1997, 재인용). 성인이나 아동은 정서의 강도가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고, 언어적으로나 비언어적으로 정서강도의 변화를 포현한다. 6세와 8세의 아동은 정서의 강도를 구별할 수 있고, 주어진 상황에서 강도가 변화하는 반대유형의 복합정서를 예상할 수 있다고 한다(Whitesell & Harter, 1989).

정서 체험의 강도는 각성, 반응성 및 신체화 증상, 신경증적 증상의 척도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Larsen & Diener,1987). 또한 정서강도가 높은 사람들이 자신 안의 유도 된 정서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어 왔다(Fujita, Diener & Sandvik, 1991; Haddock, Zanna, & Esses, 1994) Fujita, Diener & Sandvik(1991)는 정서강도에 대한 남녀차이에 대한 그들의 연구에서 여자가 남자에 비해 더 강한 정서강도를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들은 일관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지 못한데,

Kring, Smith 및 Neale(1994)의 연구를 살펴보면 정서강도는 정적인 정서표현 및 부적인 정서표현과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을 보여 주었고 정서표현성과도 유의미한 정적인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외향성, 정서적 안정성과 같은 성격변인과 정적인 관련이 있었고 상황에 맞게 자신을 적절히 조절하는 능력인 자기검색 성향과도 정적인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명확하고 강한 정서의 체험이 자신의 정서를 밖으로 표현하는 것과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능력과 상호 관련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Gohm(2003)은 정서 강도가 강한 사람들은 정서의 영향을 더 잘 지각하고 정서의 영향을 줄이려는 노력을 더 많이 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정서강도 측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낮은 점수의 사람들에 비해 특정집단에 대해 특정정서를 유발했을 때, 집단에 대한 기존의 태도나 고정관념 등에 크게 영향 받는 경향성을 보여주었다(Haddock, Zanna, & Esses, 1994). 이러한 결과들은 정서를 강렬하게 경험하는 사람들은 유발된 정서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다는 사실을 시사해준다.

몇몇 연구들은 개인이 정서를 경험하는 강도와 공감능력 간에 상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서를 경험하는 강도와 공감 간에 정적인 상관을 보고하고 있고(박인조, 김방실, 이양, 2002), 높은 공감능력을 가진 사람은 단순히 슬픔과 같은 부정적 정서에만 민감한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같은 긍정적 정서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함을 보여주고 있다(Duan, 2000). 또한 공감수준이 높은 집단이 기쁨 동영상을 보는 동안 긍정적 감정을 더 높게 보고하였고, 슬픔 동영상을 보는 동안 부정적 감정을 더 높게 보고하였다. 이는 공감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정서를 유발하는 자극에 대하여 보다 적절한 정서반응을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다(정봉교, 김지연, 2006).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개인이 경험하는 정서강도의 크기는 공감과 관련성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3) 공감 (empathy)

공감은 발달·사회·상담심리 등 여러 분야의 연구자들에 의해서 많은 관심을 받아온 개념이지만 단일차원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개념이다. 관찰된 공감, 지각된 공감처럼 공감의 행동적 측면에 초점을 두는 것이 있고, 개인의 성격이나 지속적인 성향으로 파악하는 측면이 존재한다. 이러한 공감은 ‘성향적 공감’ 또는 ‘특성 공감’으로 지칭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경험을 알거나 그 사람의 감정을 느끼는 일반적 성향을 의미한다(박성희, 2004). 본 연구에서는 공감을 성격으로서의 공감, 개인의 안정적인 성향으로서의 공감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또한 공감은 그 강조되는 특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인지적 측면을 강조한 것, 정서적 측면을 강조한 것과 복합요소설을 주장한 것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Piaget(1932)나 Mead(1934)같은 강력한 인지론자들은 공감을 타인의 역할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역할 수용(role-taking)이나 타인의 관점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관점수용(perspective-taking)으로 정의하였다. 인지 발달적 입장에서는 공감능력이 인지능력과 마찬가지로 일련의 연속적인 변화를 거치면서 발달한다고 주장한다(Piaget & Inhelder, 1969). Piaget(1969)는 공감능력의 발달이 아동의 자기중심적 사고가 탈중심적인 사고로 전환하면서 발달한다고 보고 탈중심적인 사고가 가능한 7세

이후에나 공감능력이 형성된다고 하였다.

공감의 정서적 측면을 강조한 연구자들은 공감은 정서 지향적 현상으로서 타인의 정서적 상태에 대한 이해로부터 촉발되는 정서 상태라고 본다(Eisenberg & Miller, 1987). 공감을 타인 감정에 대한 대리적 정서경험 반응이라 주장한 Hoffman(1982)은 공감을 타인의 감정에 대한 추론이나 타인 감정에 대한 대리적 정서반응으로 보았고 총체적 공감, 자기중심적 공감, 타인의 감정에 대한 공감, 타인의 일반적 곤경에 대한 공감 등의 4단계로 발달한다고 하였다. 그는 공감의 발달을 설명하면서 어린 아동들은 자신과 타인의 분리에 대한 의식 없이 자발적, 무의식적인 정서 감염에 의해 공감을 경험하는데, 성장함에 따라 점차 타인에 대한 인지적 감각이 발달되어 보다 성숙한 공감자로 변화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서 공감 발달의 중요한 측면은 자신과 타인과의 분화, 타인의 시각에 대한 이해이며, 무의식적이고 자발적인 정서반응으로서 공감은 관점수용이라는 인지적 과정을 거치면서 보다 성숙한 공감으로 발달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타인의 감정을 함께 나누는 대리적 정서 경험(vicarious emotional experience)으로 공감을 정의하는 입장들은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 이타행동 또는 공격성의 억제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로 발전되었다(Goldstein & Michaels, 1985; Koestner, Franz & Weinberger, 1990).

최근에는 공감이 인지 또는 정서 어느 한 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가 상호 관련된 체제이므로 어느 한 면만을 배타적으로 연구하여서는 공감의 현상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Hoffman, 1977; Davis, 1980).

공감을 바라보는 관점을 다각화하여 다차원적인 특징으로 파악한 학자인 Davis(1980)는 공감을 네 가지 하위차원으로 나누어 그 하위 구성요

소들을 변별 가능한 특성으로 정의하고 이를 실증적, 경험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그는 공감을 관점 취하기, 상상하기, 공감적 관심, 개인적 고통으로 구분했다. 공감의 인지적 요소를 측정하는 관점취하기(Perspective-taking)는 정서적 반응성과는 별 관련이 없는 대신 상대방의 느낌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능력과 관련되어 있었고, 공감의 정서적 요소를 측정하는 공감적 관심(Empathic concern)은 일반적인 정서 반응성, 타인 지향적 민감성, 배려 등과 강한 상관을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관점취하기와 상상하기는 공감의 인지적 요소를, 공감적 관심과 개인적 고통은 공감의 정서적 요소와 관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avis, 1983, 1987).

본 연구에서는 공감을 인지와 정서적 측면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그 개념을 ‘타인의 내적인 심리상태를 추론하는 인지적 능력과 그 사람의 정서적 상태에 대해 파악하여 대리 경험할 수 있는 정서적 자질’로 정의한 Davis(1980)의 견해를 따르고자 한다.

공감과 여타 심리적 발달 특성과의 관련성을 규명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타인을 공감하는 능력은 대인관계 형성의 기초가 되고 스트레스 대처와 갈등해결에 기여한다. 따라서 공감은 중요한 자아강도의 핵심적 목록이며 현실검증, 지능, 창의력과 대등한 가치가 있으며, 정서적 건강의 예방과 유지에 중요한 능력이다(Kohut, 1977). 공감은 타인의 느낌이나 의도를 이해하고, 행동을 예측하고 정서표현에 의해 발생하는 정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사회적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허용해 준다(정봉교, 김지연, 2006). 이렇듯 공감은 사회성과 매우 밀접한 상관을 보이고, 이타행동과 친사회적 행동을 촉진하고, 공격적 행동을 억제시킴으로 사회적 유대관계를 강화시켜주는 요소라는데 대

부분 연구자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반면에 공감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이나 처한 입장을 이해하고 수용하기 보다는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행동하며, 때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Clark, 1980). 공감능력이 결핍된 극단적인 예는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범죄자이거나 비행청소년들에게서 볼 수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으로 인해 고통 받는 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피해자의 고통을 즐기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상대방이 피해를 받더라도 자신의 욕구만을 충족하려는 행동을 보인다(Miller & Eisenberg, 1988).

지금까지 살펴본 공감 관련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공감이 심리적, 사회적 적응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능력이라는 점은 확실하다. 그렇지만 공감의 산물에 관한 연구에 더하여 공감과 관련된 개인의 성격·정서적 특징, 공감을 발생시키는 환경 등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더 필요하다.

4) 정서경험의 개인차변인으로서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강도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 속에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정서의 크기나 정서에 대한 이해에는 개인차가 존재한다. 개인마다 경험하는 정서의 강도가 다르고 자신의 정서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이를 인식하는데 차이가 있다는 사실과 정서경험이 개인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Diener, 1984; Gohm, Oishi, Darlington, & Deiner, 1998).

Gohm과 Clore(2000)는 정서 관련 정보처리에 관여하는 개인차로서의

세 가지 정서경험 특성으로 정서인식명확성, 정서 주의력과 정서 강도를 들고 있다. 이들은 정서경험의 개인차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개인이 정서를 경험하는데 상이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와 관련된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의 연구에서 개인 간에 큰 차이를 나타낸 변인은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강도였다.

Gohm(2003)은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정서 강도, 정서주의를 변인으로 군집분석을 한 결과 네 가지의 정서 유형을 얻었다. 정서인식명확성은 높고 정서강도는 약한 집단을 “cerebral”, 정서인식명확성도 낮고 정서강도도 약한 집단을 “cold”, 정서인식명확성도 높고 정서 강도도 강한 집단을 “hot”이라 하고, 마지막으로 정서 강도는 강하지만 정서인식명확성은 낮은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을 “overwhelmed” 집단이라고 명명하였다. 각 집단은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는 양식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정서인식명확성도 높고, 정서강도도 높은 열정집단은 능동적인 대처양식을 주로 사용한 반면에 정서인식명확성은 낮고, 정서강도가 높은 압도집단은 회피적인 대처양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에 대해 명료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혼란의 크기는 정서 경험의 강도가 약한 사람들보다 강한 사람들에게서 더욱 강렬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정서의 체험을 강렬하게 하면서 경험하는 정서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지 못할 경우에는 일상생활에 부적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개인은 심리적인 혼란을 경험 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공감을 유발하는 정서경험을 다루고 있는 연구들은 공감을 잘 하는 사람은 타인의 복지에 관심을 갖는 친사회적 행동을 잘 나타내기 때문에 일반적인 긍정적 성격특질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Kagan & Schneider, 1987). 공감과 정서유형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공감을 잘 하는 사

람들이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빈도가 높았음을 보여준다(박인조, 김방실, 이양, 2002). 또한 공감과 관련된 정서 및 동기유형을 알아보는 연구에서는 긍정적 정서와 행동 활성화 동기체계가 높은 공감 수준과 관련이 있고, 부정적 정서와 행동 억제 동기체계가 공감의 결손과 관계가 있음을 밝힌바 있다(정봉교, 김지연, 2006).

본 연구는 정서경험의 개인차 변인으로 알려져 있는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강도와 공감의 관계를 알아보고, 공감을 잘하는 사람들의 정서경험의 특성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5) 정서인식명확성, 정서강도와 공감의 연령차와 성차

연령과 발달단계에 따른 정서 경험의 차이에 관심을 둔 대부분의 연구들은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성인기 동안에 나타나는 정서성의 변화를 검증하고자 한 연구들도 존재한다.

연령증가에 따른 정서강도의 변화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Lawton, Kleban과 Dean(1993)는 청년집단(18세-29세), 중년집단(30-59세)과 노년집단(60세 이상)간에 정서 강도의 나이 관련 감소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Diener, Sandvik, 및 Larsen(1985)은 대학생과 그들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정서체험 질문지를 사용한 연구를 실시한 결과, 연령과 성별에 따라서 정서체험의 강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음을 밝혔는데, 이 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강렬한 정서를 체험하고 20-29세의 연령 범위를 갖는 자녀 세대가 50-68세의 부모세대보다 더 강한 정서를 체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에서 청년집단과 중년집단간의 정서경험의 세대 차이를 알아본 결과 기쁨과 슬픔을 체험하는 강도에 있어서 유의한 세대

차가 발견되었는데 자녀세대보다 부모세대의 정서 체험의 강도가 높았다(민경환, 김지현, 황석현, 장승민, 1998). 그러나 정서강도가 연령증가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도 존재한다(Malatesta, Kalnok, 1984).

공감능력의 연령차를 살펴본 연구들은 대부분 공감능력이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아동의 감정이입능력과 정서조절능력의 관계를 알아본 서지연(2003)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정이입 능력도 높아짐을 발견하였고, 부모의 수용과 청소년의 공감능력간의 관계를 알아본 김성일(1998)의 연구에서는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공감능력이 더 높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연진영(1986)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공감능력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각 변인들의 성차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정서 인식명확성이 높았고(조성은, 2005; 조소현, 2005), 여성이 남성보다 정서를 더 강하게 경험한다는 성차를 발견한 연구와(Kring & Gordon, 1998; Gross & John, 1998; Diener, Sandvik, Larsen, 1985), 공감능력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김성은, 1997; 김성일, 1998)가 존재한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연령과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연구들은 주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전 생애 발달적 관점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연령차나 성차를 알아 본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기 성인기에 해당하는 청년집단과 중기 성인기에 해당하는 중년집단에서 정서인식명확성, 정서강도 및 공감능력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II. 연구문제 및 가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강도가 개인의 정서경험의 개인차를 설명해 주는 변인으로 알려져 있고, 이 변인들이 정서를 일으키는 상황 속에서 개인의 대처반응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강도가 공감능력과 의미 있는 관계를 보일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강도의 개인차에 관한 연구와 관련 변인과의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두 변인의 복합적 결합차원에 따른 개인차 연구는 많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정서경험의 개인차변인으로 알려져 있는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강도를 선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정서강도가 공감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 정서인식명확성, 정서강도, 공감이 연령과 성별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강도의 조합으로 구분되는 정서경험 군집에 따라 공감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 1. 정서인식명확성, 정서강도, 공감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인가?

가설 1-1. 정서인식명확성은 중년집단이 더 높을 것이다.

가설 1-2. 정서강도와 공감은 청년집단이 더 높을 것이다.

가설 1-3. 정서인식명확성은 남자가 더 높을 것이다.

가설 1-4. 정서강도와 공감은 여자가 더 높을 것이다.

연구 문제 2. 정서경험 군집에 따라 공감의 차이가 있을 것인가?

가설 2-1. 열정집단의 공감이 가장 높을 것이다.

가설 2-2. 냉담집단의 공감이 가장 낮을 것이다.

연구 문제 3.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강도는 공감과 어떠한 관계가 있을 것인가?

가설 3-1. 정서인식명확성, 정서강도의 고저에 따라 공감 및 하위요인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절차

서울시와 경기도 소재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220명과 서울시와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년 남녀 166명, 총 386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설문지는 총 453부가 회수되었으나, 이중 누락된 문항이 있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보인 설문 67부를 제외한 386명의 자료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대학생 220명(남 105명, 여 115명)의 평균연령은 22.37세(표준편차 5.48)이었으며, 연령범위는 18세-28세였다. 중년 166명(남 72명, 여 94명)의 평균연령은 49.77세(표준편차 6.75)이었으며, 연령범위는 39세-59세까지였다.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약 25분-30분이었다.

2.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정서인식명확성을 측정하는 도구 2개와 정서강도를 측정하는 도구 1개, 공감을 측정하는 도구 1개, 총 4개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정서인식명확성은 특질상위기분척도(Trait Meta-Mood Scale; TMMS)의 11문항과 기분인식척도(Mood Awareness Scale; MAS)의 5문항을 합하여 측정하였다. 정서강도는 정서강도 척도(Affect Intensity Measures; AIM)로 측정하였다. 공감은 관점취하기, 상상하기, 공감적 관심, 개인적

고통 등의 4개의 하위영역으로 이루어진 대인관계반응 척도(Interpersonal reaction index; IRI)를 사용하였다.

1) 정서인식명확성 척도

(1) 특질 상위 기분 척도(Trait Meta-Mood Scale; TMMS)

Salovey, Mayer, Golman, Turvey와 Palfai(1995)가 개발하였다. 총 30 문항, 5점 척도. 자신의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를 측정하는 정서주의 13문항, 자신의 느낌을 명확하게 경험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정서인식명확성 11문항, 부정적인 기분을 회복시키고 긍정적인 정서를 유지시킬 수 있다고 믿는 정서개선 6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1점(전혀 아니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 상에서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수정과 이훈구(1997)가 번안하고 옥수정(2001)이 수정한 척도에서 정서인식명확성 11문항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2) 기분인식척도(Mood Awareness Scale; MAS)

Swinkels와 Giuliano(1995)가 기분상태에 주어지는 주의의 양상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1점(전혀 아니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 평가하는 5점 Likert식 평정척도이다. 자신의 기분을 관찰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과정을 나타내는 기분 검색(5개 문항)과 경험하는 기분을 명확히 정리하는 기분 명명(5개 문항)의 두 하위차원으로 나뉜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인식명확성을 측정하기 위해 기분명

명을 측정하는 5개 문항(예: 나는 거의 항상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수정과 이훈구(1997)가 번안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정서인식명확성 척도의 점수범위는 16-80점이고, 본 연구에서 얻어진 정서인식명확성 척도의 내적일치도는 Cronbach's $\alpha = .78$ 이었다.

2) 정서강도 척도(Affect Intensity Measures; AIM)

Larsen과 Diener가 1987년에 개발한 정서강도 척도는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에 대해서 개인이 얼마나 강렬한 정도로 느끼는지를 1점(전혀 아니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 평가하는 5점 Likert식 평정척도이다. 총 4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범위는 40-200점이다. 주관적 경험(예: 누군가 나를 칭찬할 때, 나는 터질 듯 행복해지곤 한다), 신체적 반응(예: 내가 초조해질 때, 나는 온몸이 떨린다), 인지적 수행(예: 내가 어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과제를 완수했을 때 나는 희열을 느낀다) 등의 정서적 반응이 표출되는 다양한 경로가 포함되어 있어서 다양한 정서적 반응양식을 반영한다. 본 연구에서는 옥수정(2001)이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내적 일치도는 Cronbach's $\alpha = .81$ 이었다.

3) 대인관계반응 척도(Interpersonal Reaction Index; IRI)

Davis(1980)는 공감을 다차원적 특성을 가진 개념으로 파악하고 이를 네 가지 하위 차원으로 나누어 대인관계반응 척도를 개발하였다. 4개의 하위척도는 관점취하기 척도, 상상하기 척도, 공감적 관심 척도 및 개인적 고통 척도이며, 각 척도별로 7문항씩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척도의 점수범위는 7-35점이다.

관점취하기 척도(예: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 나는 대개 잠시나마 그의 입장에 서 보려고 노력한다)는 자신으로부터 벗어나서 상대방의 관점과 입장에 서보려는 능력이나 경향성을, 상상하기 척도(예: 나는 남을 비난하기 전에 내가 만일 그 사람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느낄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노력한다.)는 영화, 소설, 연극 등 가상적인 상황속의 인물이 되어 보는 상상력을, 공감적 관심 척도(예: 나보다 불행한 사람들을 볼 때 자주 그를 염려하는 따뜻한 감정이 일어난다.)는 관찰대상에 대해 온정, 자비, 관심 등의 느낌을 경험하는 정도를, 개인적 고통 척도(예: 나는 비상시에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는 편이다.)는 타인의 고통스런 상황을 보고 느끼는 심리적인 불편함의 정도를 측정한다. 1점(전혀 아니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 평가하는 Likert식 5점 평정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박성희(1997)가 변안한 척도를 사용하였고, 산출된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관점취하기가 .67 이었고, 상상하기는 .79, 공감적 관심은 .68, 개인적 고통은 .63 이었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 14.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각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각 변인들 간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하여 적률 상관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연령과 성별에 따른 공감, 정서인식명확성, 정서강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넷째, 정서경험 군집 별로 공감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연령집단 별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강도에 따라 공감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령집단 별로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 과

본 연구는 정서인식명확성 및 정서강도와 공감의 관계를 살펴보고,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강도가 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우선 주요변인들의 상관관계와 연령과 성별에 따라 주요변인들의 평균차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다음으로 주요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정서경험 군집 별로 공감 및 공감의 하위요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강도의 고저에 따른 공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1. 연령과 성별에 따른 정서인식명확성, 정서강도, 공감의 평균 및 표준편차

1) 정서인식명확성, 정서강도, 공감의 연령차

연령에 따라 정서인식명확성, 정서강도 및 공감의 차이가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표1).

공감의 인지적 요소에 속하는 관점취하기와 상상하기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관점취하기는 중년집단이 청년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t=-2.037, p<.05$), 상상하기의 경우, 청년집단의 점수가 중년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t=5.438, p<.001$). 공

감의 연령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t=2.321, p<.05$), 청년집단이 중년집단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정서경험의 개인차 변인인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강도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정서인식명확성은 중년집단이 청년집단보다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고($t=-.890, n.s$), 정서강도는 청년집단이 중년집단보다 높은 경향성을 보였다($t=.777, n.s$).

표 1. 연령에 따른 정서인식명확성, 정서강도, 공감의 차이

	청년 (n=220)	중년 (n=166)	<i>t</i>
	M(SD)	M(SD)	
정서인식명확성	54.37 (8.55)	55.14 (8.15)	-.890
정서강도	132.91 (14.83)	131.69 (15.86)	.777
공감	95.67(10.24)	93.27(9.79)	2.321*
관점취하기	24.05 (3.66)	24.81 (3.63)	-2.037*
상상하기	25.03 (4.63)	22.43 (4.65)	5.438***
공감적관심	24.85 (4.07)	24.93 (3.51)	-.204
개인적고통	21.79 (3.71)	21.19 (3.66)	1.575

* $p<.05$ ** $p<.01$ *** $p<.001$

2) 정서인식명확성, 정서강도, 공감의 성차

전체 연구대상자를 연령에 따라 청년집단과 중년집단으로 나눈 후, 성별에 따른 각 변인들의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표2, 표3)

표2와 표3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공감 전체에 대해서 청년집단($t=-3.031$, $p<.05$)과 중년집단($t=-2.27$, $p<.05$) 모두 여자가 남자보다 더 공감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의 하위요소 별로 살펴본 결과, 청년집단에서 공감의 인지적 요소에 해당하는 상상하기($t=-3.288$, $p<.001$)와 정서적 요소에 해당하는 개인적 고통($t=-2.988$, $p<.001$)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중년집단에서는 공감의 정서적 요소에 해당하는 공감적 관심($t=-2.041$, $p<.05$)과 개인적 고통($t=-2.735$, $p<.01$)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정서인식명확성의 성차가 중년집단에서 나타났는데, 남자의 정서인식명확성이 여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344$, $p<.05$). 청년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남자가 여자보다 정서인식명확성이 높은 경향성을 보였다($t=1.113$, n.s). 정서강도는 청년집단과 중년집단 모두에서 유의미한 성차는 나타나지 않았고,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경향성을 보였다(청년: $t=-.699$, n.s, 중년: $t=-1.946$, n.s).

표 2. 청년집단의 성별에 따른 정서인식명확성, 정서강도, 공감의 차이

청년집단	남자 (n=105)	여자 (n=115)	t
	M (SD)	M (SD)	
정서인식명확성	55.06 (8.39)	53.78 (8.54)	1.133
정서강도	132.16 (13.66)	133.55 (15.82)	-.699
공감	93.58 (9.47)	97.67 (10.62)	-3.031*
관점취하기	23.91 (3.75)	24.27 (3.56)	-.739
상상하기	23.94 (4.34)	25.95 (4.75)	-3.288**
공감적관심	24.69 (3.94)	25.08 (4.20)	-.712
개인적고통	21.02 (3.64)	22.47 (3.59)	-2.988**

* $p < .05$ ** $p < .01$

표 3. 중년집단의 성별에 따른 정서인식명확성, 정서강도, 공감의 차이

중년집단	남자 (n=72)	여자 (n=94)	t
	M (SD)	M (SD)	
정서인식명확성	56.83 (8.79)	53.80 (7.56)	2.344*
정서강도	128.98 (15.61)	133.84 (15.85)	-1.946
공감	91.18 (9.69)	94.61 (9.43)	-2.270*
관점취하기	24.34 (3.53)	25.11 (3.74)	-1.320
상상하기	22.25 (5.12)	22.48 (4.17)	-.318
공감적관심	24.26 (3.22)	25.38 (3.62)	-2.041*
개인적고통	20.29 (3.81)	21.86 (3.47)	-2.735**

* $p < .05$ ** $p < .01$

2. 정서인식명확성, 정서강도 및 공감의 상관관계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4).

분석 결과, 정서인식명확성은 공감의 하위요인 중, 인지적 요소에 해당하는 관점취하기($r=.262, p<.01$)와 정서적 요소에 속하는 공감적 관심($r=.199,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개인적 고통($r=-.307, p<.01$)과는 유의한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정서강도는 상상하기($r=.419, p<.01$), 공감적 관심($r=.369, p<.01$), 개인적 고통($r=.321,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개인적 고통은 정서인식명확성과 부적 상관을 보인 반면($r=-.307, p<.01$), 정서강도는 개인적 고통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r=.321, p<.01$). 정서인식명확성이 높을수록 타인의 고통이나 어려움에 덜 영향을 받으며, 정서를 강하게 체험 할수록 타인의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경향이 큼을 알 수 있다.

정서인식명확성은 공감의 인지적 요소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r=.149, p<.01$),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정서적 요소와는 부적의 경향성을 보였다($r=-.088, n.s$). 정서강도는 공감의 인지적 요소과도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이고($r=.330, p<.01$), 정서적 요소와도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으며($r=.471, p<.01$), 정서적 요소와 더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청년집단과 중년집단을 나누어서 실시한 상관분석 결과, 상관의 정도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기는 했지만 상관의 양상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4. 주요 변인 간 상관

	1	2	3	4	5	6	7	8	9
1. 정서인식명확성	1.000								
2. 정서강도	-.044	1.000							
3. 공감	.068	.467**	1.000						
4. 인지적 요소	.149**	.330**	.867**	1.000					
5. 관점취하기	.262**	.037	.564**	.686**	1.000				
6. 상상하기	.002	.419**	.746**	.832**	.168**	1.000			
7. 정서적 요소	-.061	.471**	.797**	.398**	.207**	.381**	1.000		
8. 공감적 관심	.199**	.369**	.692**	.456**	.365**	.340**	.735**	1.000	
9. 개인적 고통	-.307**	.321**	.450**	.105*	-.087	.209**	.709**	.052	1.000

* $p < .05$ ** $p < .01$ *** $p < .001$

3. 정서경험 군집 별 공감 및 공감의 하위요인의 차이

1) 정서경험 특징에 따른 집단 구분

청년집단과 중년집단을 따로 구분하여 정서강도와 정서인식명확성의 점수에 따라 각 연령집단의 참가자를 네 개의 정서경험 군집으로 구분하였다. 정서경험 군집의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강도의 평균을 각 연령집단 별로 제시하였다(표5).

표 5. 청년, 중년집단의 군집의 빈도 및 정서인식명확성, 정서강도의 평균

집 단	청 년 (n=220)		집 단	중 년 (n=166)	
	정서인식 명확성	정서강도		정서인식 명확성	정서강도
	M(SD)	M(SD)		M(SD)	M(SD)
열정집단 (n=50)	61.84 (5.26)	143.88 (10.59)	열정집단 (n=37)	59.94 (3.45)	144.29 (9.02)
침착집단 (n=48)	62.29 (5.11)	121.66 (7.60)	침착집단 (n=39)	63.94 (5.98)	119.05 (8.98)
압도집단 (n=55)	46.29 (5.11)	143.83 (9.41)	압도집단 (n=45)	48.46 (4.13)	142.42 (10.39)
냉담집단 (n=67)	49.77 (4.91)	123.82 (12.90)	냉담집단 (n=45)	50.24 (5.76)	121.15 (13.55)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강도의 평균에 따라 집단을 구분한 결과, 정서경

험 군집은 크게 ① 열정 집단(hot), ② 침착집단(cerebral), ③압도집단(overwhelmed), ④ 냉담집단(cold)으로 분류되었다. 청년집단의 경우, 열정집단은 정서강도와 정서인식명확성이 모두 평균 이상인 집단으로 50명(22.7%)이 이에 속했다. 침착집단은 정서인식명확성은 평균이상이고 정서강도는 평균 이하인 점수를 나타내는 유형으로 48명(21.8%)이 해당되었다. 다음으로 압도집단은 정서인식명확성은 평균 이하, 정서강도는 평균 이상인 집단이고, 55명(25%)이 집단에 속하였다. 냉담집단은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강도의 점수가 모두 평균 이하를 나타내는 유형으로 67명(30.5%)이 이에 속하여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중년집단의 군집별 빈도는 열정집단이 37명(22.3%), 침착집단은 39명(23.5%), 압도집단은 45명(27.1%), 냉담집단은 45명(27.1%)이었다. 정서경험 군집 별로 성별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표6), 압도 집단의 경우에는 여자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양상은 청년과 중년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하였던 Gohm(2003)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표 6. 청년과 중년집단의 정서경험 군집 별 성별 분포

집단	청 년 (n=220)			중 년 (n=166)		
	성 별		전체 (%)	성 별		전체 (%)
	남(%)	여(%)		남(%)	여(%)	
열정집단	26(52)	24(48)	50(22.7)	11(29.7)	26(70.3)	37(22.3)
침착집단	22(45.8)	26(54.2)	48(21.8)	23(58.9)	16(41.1)	39(23.5)
압도집단	20(36.4)	35(63.6)	55(25)	19(42.2)	26(57.8)	45(27.1)
냉담집단	37(55.2)	30(44.8)	67(30.5)	19(42.2)	26(57.8)	45(27.1)
전체	105(47)	115(53)	220(100)	72(43.3)	94(56.7)	166(100)

2) 정서경험 군집 별 일원변량분석 결과

각 군집별로 공감 및 공감의 하위요인의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청년집단과 중년집단에서 각각 구분되어진 네 집단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공감 및 하위요인들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네 군집 간 유의한 차이가 발생한 변인들에 대해서는 Scheffe 방식을 사용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네 군집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공감 총점 및 공감의 하위요인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청년과 중년 모두 네 집단에서 공감 및 하위요인의 점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청년집단의 경우, 전체 공감점수($F(3,216)=10.992, p<.001$)는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강도가 모두 평균 이상인 열정집단의 공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압도집단이 두 번째로 높았다. 사후 검증 결과, 열정집단과 압도집단이 침착집단과 냉담집단보다 유의미하게 공감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의 하위요인 중 인지적 요소에 해당하는 요인인 관점취하기의 점수의 집단 간 차이도 유의미하였으며($F(3,216)=7.871, p<.001$), 열정집단의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압도집단의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검증 결과, 열정집단과 침착집단이 압도, 냉담집단보다 관점취하기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상하기에서도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3,216)=9.024, p<.001$), 열정집단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침착집단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사후 검증 결과, 열정집단과 압도집단이 침착, 냉담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상상하기 수준을 보였다. 공감의 정서적 요소에 해당하는 요인인 공감적 관심에서도 네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3,216)=10.655, p<.001$) 열정집단이 공감적 관심이 가장 높았고, 냉담집단이 가장 공감적 관심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사후 검증 실시 결과, 열정집단이 침착, 냉담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공감적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고통도 네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F(3,216)=12.307, p<.001$), 압도집단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침착집단이 가장 낮았다. 사후 검증 결과, 압도집단이 열정, 침착, 냉담집단보다 개인적 고통의 수준이 유의미하게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중년집단의 경우, 전체 공감점수의 군집 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집단과 마찬가지로 열정집단과 압도집단의 공감이 침착, 냉담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관점 취하기에서는 네 군집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상상하기, 공감적 관심, 개인적 고통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상하기는 열정집단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침착집단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 청년집단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사후 검증 결과, 열정집단이 나머지 세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상상하기 점수가 높은 것이 확인되었다. 공감적 관심에서는 열정집단이 가장 높고, 냉담집단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이 두 집단의 공감적 관심의 점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고통은 압도집단과 열정집단의 점수가 침착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표7과 표8에 제시하였다.

표 7. 청년집단의 정서경험 군집에 따른 공감 및 하위요인의 차이

	열정집단 (n=50)	침착집단 (n=48)	압도집단 (n=55)	냉담집단 (n=67)	<i>F</i>	<i>df</i>
	M(SD)	M(SD)	M(SD)	M(SD)		
공감	100.20b ¹⁾ (8.76)	92.77a (10.20)	98.90b (10.34)	91.73a (9.14)	10.992***	3
관점취하기	25.68b (3.46)	24.87b (3.60)	22.81a (3.61)	23.26a (3.36)	7.871***	3
상상하기	26.34b (4.12)	23.33a (4.81)	26.89b (4.06)	23.74a (4.56)	9.024***	3
공감적관심	27.04b (3.35)	24.47a (4.04)	25.36ab (3.91)	23.08a (3.93)	10.655***	3
개인적고통	21.12a (3.50)	20.10a (3.87)	24.05b (3.50)	21.64a (3.05)	12.307***	3

* $p < .05$ ** $p < .01$ *** $p < .001$

1) 첨자 (a,b,c)는 scheffe 사후비교검증의 결과. 상이한 첨자가 표시된 평균들은 $p < .05$ 수준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함을 의미함.

표 8 . 중년집단의 정서경험 군집에 따른 공감 하위요인의 차이

	열정집단 (n=37)	침착집단 (n=39)	압도집단 (n=45)	냉담집단 (n=45)	<i>F</i>	<i>df</i>
	M(SD)	M(SD)	M(SD)	M(SD)		
공감	99.51b ²⁾ (10.48)	90.28a (8.33)	94.75b (10.12)	89.26a (6.93)	10.660***	3
관점취하기	25.45 (3.85)	25.38 (3.88)	24.64 (3.71)	23.97 (3.01)	1.552	3
상상하기	25.67b (3.84)	20.64a (5.09)	22.64a (4.77)	21.11a (3.24)	10.760***	3
공감적관심	26.18b (4.12)	25.23ab (3.15)	25.22ab (3.61)	23.37a (2.59)	5.056**	3
개인적고통	22.45b (3.49)	19.02a (3.65)	22.46b (3.38)	20.75ab (3.14)	9.273***	3

* $p < .05$ ** $p < .01$ *** $p < .001$

4. 정서인식명확성 및 정서강도의 고저에 따른 공감의 차이

개인의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강도에 따라 공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청년집단과 중년집단 별로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강도의 상위 50% 점수를 기준으로 고·저 집단으로 나눈 후 이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공감 및 하위 요인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강도 수준에 따른 공감 및 하위요인 점수의 평균, 표준편차와 이원변량분석 결과는 표9부터 표12까지 제시하였다.

2) 첨자 (a,b,c)는 scheffe 사후비교검증의 결과. 상이한 첨자가 표시된 평균들은 $p < .05$ 수준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함을 의미함.

청년집단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관점취하기 점수는 정서인식명확성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높았으며($F(1, 220)=17.754, p<.001$), 상상하기는 정서강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점수가 높았다($F(1, 220)=31.396, p<.001$). 공감적 관심은 정서인식명확성이 높은 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높았고($F(1, 220)=10.763, p<.01$), 정서강도가 높은 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F(1, 166)=26.717, p<.001$). 개인적 고통은 정서인식명확성($F(1, 220)=19.310, p<.001$)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개인적 고통의 점수가 높았고, 정서강도($F(1, 220)=10.09, p<.05$)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중년집단에서 관점취하기 점수는 정서인식명확성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높았다($F(1,166)=4.644, p<.05$). 상상하기는 정서인식명확성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상상하기 점수가 높았고($F(1,166)=6.948, p<.01$) 정서강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F(1,166)=24.405, p<.001$). 공감적 관심에서도 정서인식명확성이 높고($F(1,166)=7.762, p<.01$) 정서강도가 높은 집단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고, ($F(1,166)=8.264, p<.01$)개인적 고통은 정서강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F(1,166)=25.030, p<.001$).

표 9. 청년의 정서인식명확성 및 정서강도에 따른 공감 및 하위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정서인식 명확성 수준	정서강도 수준				전체 M(SD)	N
		고		저			
공감	고	M(SD)	N	M(SD)	N		
	저						
	전체	M(SD)	N	M(SD)	N		
관점취하기	고						
	저						
	전체	M(SD)	N	M(SD)	N		
상상하기	고						
	저						
	전체	M(SD)	N	M(SD)	N		
공감적관심	고						
	저						
	전체	M(SD)	N	M(SD)	N		
개인적고통	고						
	저						
	전체	M(SD)	N	M(SD)	N		

* $p < .05$, ** $p < .01$, *** $p < .001$

표 10 . 청년의 정서인식명확성 및 정서강도에 따른 공감 및 하위 요인의 이원변량분석 결과

종속변인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 자승화	F
공감	정서인식명확성(A)	115.064	1	115.064	1.265
	정서강도(B)	3251.184	1	3251.184	35.749***
	A × B	.008	1	.008	.000
	오차	19643.887	216	90.944	
	전체	2036909.000	220		
관점취하기	정서인식명확성(A)	220.754	1	220.754	17.754***
	정서강도(B)	5.818	1	5.818	.468
	A × B	27.679	1	27.679	2.226
	오차	2685.813	216	12.434	
	전체	130238.000	220		
상상하기	정서인식명확성(A)	3.947	1	3.947	.208
	정서강도(B)	594.852	1	594.852	31.396***
	A × B	3.843	1	3.843	.203
	오차	4092.559	216	18.947	
	전체	142563.000	220		
공감적 관심	정서인식명확성(A)	154.824	1	154.824	10.763**
	정서강도(B)	384.320	1	384.320	26.717***
	A × B	.075	1	.075	.005
	오차	3107.174	216	14.385	
	전체	139589.000	220		
개인적 고통	정서인식명확성(A)	235.457		235.457	19.310***
	정서강도(B)	123.026		123.026	10.090**
	A × B	13.792		13.792	1.131
	오차	2633.759		12.193	
	전체	107496.000			

* $p < .05$, ** $p < .01$, *** $p < .001$

표 11. 중년의 정서인식명확성 및 정서강도에 따른 공감 및 하위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정서인식 명확성 수준	정서강도 수준				전체 M(SD)	N
		고		저			
종속변인		M(SD)	N	M(SD)	N		
공감	고	99.51(10.48)	37	90.81(8.18)	43	89.48(7.63)	80
	저	94.75(9.76)	49	87.94(6.72)	37	96.80(10.29)	86
	전체 M(SD)	91.82(9.19)	86	94.83(10.23)	80	93.27(9.79)	166
관점취하기	고	25.45(3.85)	37	25.37(3.72)	43	25.41(3.76)	80
	저	24.67(3.61)	49	23.72(3.16)	37	24.26(3.44)	86
	전체 M(SD)	25.01(3.71)	86	24.61(3.55)	80	24.81(3.63)	166
상상하기	고	25.67(3.84)	37	21.04(5.10)	43	23.18(5.09)	80
	저	22.59(4.58)	49	20.59(3.11)	37	21.73(4.11)	86
	전체 M(SD)	23.91(4.51)	86	20.83(4.17)	80	22.43(4.65)	166
공감적관심	고	26.18(4.12)	37	25.11(3.10)	43	25.61(3.62)	80
	저	25.16(3.48)	49	23.18(2.70)	37	24.31(3.30)	86
	전체 M(SD)	25.60(3.78)	86	24.22(3.06)	80	24.93(3.51)	166
개인적고통	고	22.45(3.49)	37	19.23(3.58)	43	20.72(3.87)	80
	저	22.53(3.26)	49	20.43(3.27)	37	21.61(3.41)	86
	전체 M(SD)	22.50(3.34)	86	19.78(3.47)	80	21.19(3.66)	166

* $p < .05$, ** $p < .01$, *** $p < .001$

표 12. 중년의 정서인식명확성 및 정서강도에 따른 공감 및 하위 요인의 이원변량분석 결과

종속변인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 자승화	F
공감	정서인식명확성(A)	595.205	1	595.205	7.429**
	정서강도(B)	2461.370	1	2461.370	30.723***
	A × B	36.571	1	36.571	.456
	오차	12978.708	162	80.115	
	전체	1460140.000	166		
관점취하기	정서인식명확성(A)	60.346	1	60.346	4.644*
	정서강도(B)	10.880	1	10.880	.837
	A × B	7.505	1	7.505	.577
	오차	2105.309	162	12.996	
	전체	104434.000	166		
상상하기	정서인식명확성(A)	127.935	1	127.935	6.948**
	정서강도(B)	449.347	1	449.347	24.405***
	A × B	70.888	1	70.888	3.850
	오차	2982.771	162	18.412	
	전체	87124.000	166		
공감적 관심	정서인식명확성(A)	89.239	1	89.239	7.762**
	정서강도(B)	95.009	1	95.009	8.264**
	A × B	8.311	1	8.311	.723
	오차	1862.464	162	11.497	
	전체	105288.000	166		
개인적 고통	정서인식명확성(A)	16.532	1	16.532	1.426
	정서강도(B)	290.187	1	290.187	25.030***
	A × B	13.038	1	13.038	1.125
	오차	1878.149	162	11.594	
	전체	76768.000	166		

* $p < .05$, ** $p < .01$, *** $p < .001$

V. 논 의

본 연구는 정서인식명확성, 정서강도와 공감에서 연령차와 성차를 확인하고,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또한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강도의 평균으로 구분된 정서경험 군집별 공감의 차이를 각 연령집단 별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강도의 고저에 따른 공감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연구의 주요 결과와 그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을 살펴 본 결과, 공감의 인지적 요소에 속하는 관점취하기가 정서인식명확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갖는 것이 확인되었다. 정서강도는 공감의 정서적 요소에 속하는 공감적 관심 및 개인적 고통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갖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강도가 공감의 하위요인과 각기 다른 양상의 상관을 보인 이 같은 결과는 Davis(1994)의 주장과 같이 공감이라는 개념이 단일한 개념이 아니라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로 이루어진 복합적인 개념임을 확인해주는 결과이다.

또한 정서인식명확성과 개인적 고통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정서강도와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정서인식명확성에 대한 여러 연구들에서는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부정적인 기분을 덜 느끼며(Ciarrochi, Y. C. & Bajgar, J., 2000), 긍정적인 정서 경험빈도와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고, 부정적인 정서경험 빈도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Emmons & Colby 1994)는 연구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

해볼 때 타인의 고통으로 인해 마음이 불편해지고 불안을 느끼는 상태의 정도를 측정하는 개인적 고통은 부정적 정서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정서인식명확성과 부적 상관을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와 같은 결과는 Gohm(2005)의 연구에서와 같이 정서인식명확성은 스트레스와 부적상관을 보이고, 정서강도는 스트레스와 정적상관이 있었다는 결과를 지지해주는 것이다.

둘째, 주요변인들의 연령차와 성차를 살펴본 결과, 청년집단과 중년집단 간에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강도의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고, 공감의 인지적 요소에 속하는 관점취하기와 상상하기에서 연령 집단차가 나타났다. 관점취하기 점수는 중년집단이 더 높고, 상상하기 점수는 청년집단이 더 높았다. 관점 취하기는 상대방의 관점과 입장에 서보려는 능력이나 경향성인데, 성인기 사고의 질적 변화를 연구하는 학자인 Perry(1981)는 중년기 성인들은 청년기의 이원론적사고(dualistic thinking)에서 벗어나 다원론적 사고(multiple thinking)로 옮겨간다고 하였다. Sinnott(1989a) 또한 성인기에는 다차원의 세계와 복잡한 인간관계에 직면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인정하게 된다고 언급하였다. 중년집단이 청년집단보다 관점취하기 점수가 높았던 것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변화하게 되는 성인기의 사고의 질적 변화로 인한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겠다.

청년집단이 중년집단보다 상상하기 점수가 높았는데, 상상하기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의 경우, 청년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일상생활 경험을 반영해주는 데 반해 중년의 성인들에게는 덜 친숙한 문항들이었을 수 있다. 각기 다른 연령대에 속하는 개인들의 보편적인 일상적인 사건의 차이가 문항에 대한 반응성의 차이로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공감의 총점에서 청년집단이 중년집단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Erikson(1982)은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에서 청년기는 강력한 우정을 만들고 타인과 함께 사랑과 동료애의 인식을 갖는 등 친밀감을 획득하는 것이 핵심적인 발달 과업이라고 하였다. 이에 반해 중년기는 자신의 직업에서 보다 더 생산적이 되고 가족을 부양하는 과업에 직면하고 이러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시기라고 하였다. 청년집단에서 전체적인 공감 수준이 중년집단 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각 연령기의 발달 과업의 차이로 인한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겠다.

청년집단과 중년집단에서 모두 공감의 성차가 발견되었는데, 여자의 공감 수준이 남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공감의 성차를 알아본 선행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김성은, 1997; 김성일, 1998; 정명실, 2003; Davis, 1980). 대부분의 국내 연구들이 주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감의 성차를 연구하였지만, 본 연구는 중년기에 해당하는 성인들을 포함하여 연구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공감의 성차에 관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공감의 성차는 연령이 증가하여도 그 양상은 크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강도의 평균점수에 따라 네 개의 정서경험 군집으로 나누고 각 군집별로 공감 및 하위요인의 평균 점수를 비교해 보았다. 청년집단과 중년집단에서 열정집단은 공감의 하위요인 중 관점취하기와 상상하기, 공감적 관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개인적 고통은 압도집단이 가장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Gohm(2003)의 연구에서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강도가 모두 평균 이상인 열정집단이 긍정적·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하는 상황 속에서 가장 강한 반응성을 보이고, 유발된 정서를 오래 지속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결과를

지지한다. 압도집단은 타인이 고통을 받는 상황을 스트레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상상하기와 개인적 고통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집단이 냉담집단이 아니라 침착집단이었다는 점은 공감의 하위요인 별로 취약한 정서균집이 다름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서강도가 낮고 정서인식명확성이 높은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동요될 만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른 집단에 비해 동요하는 폭이 적고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를 지지한다(Larsen & Diener, 1987). 또한 침착집단은 높은 정서인식명확성과 낮은 정서강도로 특징되는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상상하기의 수준이 가장 낮았다는 것은 공감의 인지적 요소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상하기가 정서적 요소와 좀 더 큰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박성희(1996)의 연구에서도 상상하기는 공감의 정서적 요소에 속하는 공감적 관심과 개인적 고통 못지않게 도움행동에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상상하기에 관한 실증적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넷째,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강도의 정도에 따라 공감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연령집단을 구분하여 알아본 결과, 공감의 하위요인 별로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강도의 주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청년집단의 경우, 관점 취하기에서 정서인식명확성의 주효과가 나타났고, 상상하기는 정서강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상상하기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는 Davis와 그의 동료들이(1987) IRI척도의 타당화 연구에서 상상하기가 인지적 특성보다도 정서적인 특성들과 높은 상관을 갖는다고 내린 결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공감적 관심은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강도의 주효과가 각각 나타나,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강도가 높은

집단이 공감적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개인적 고통은 정서인식명확성은 낮고, 정서강도는 높은 집단이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 집단은 관점취하기와 공감적 관심에서 나타난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강도의 주효과가 나타나 청년집단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인관계의 중요한 적응적 요소이며 친사회 행동의 유발기제로 알려진 변인인 공감과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강도라는 개인의 정서적 특성변인과의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두 변인의 역할을 확인하였다. 그동안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강도와 같은 변인들이 각각 공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본 연구는 어느 정도 있어 왔지만(박인조, 김방실, 이양, 2002; 김현주, 2005), 두 변인의 결합적 차원에 따른 공감의 개인차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둘째, 공감에 관한 연구들이 아동 및 청소년에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본 연구에서는 초기와 중기 성인기에 속하는 두 연령집단을 비교함으로써 전 생애 발달적 측면에서 정서경험 특성과 공감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추후의 연구에서는 노년기의 성인까지 포함하여 정서경험 특성과 공감의 발달적인 추이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기존의 정서경험 군집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정서인식명확성은 낮고 정서강도는 높은 경향을 가진 압도집단이 신경증, 미숙한 정서조절, 충동적 행동과 높은 상관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압도집단의 부적응적인 측면에 주된 초점을 맞춰왔다(김수안, 2005; 조소현, 2005; Gohm, 1999, 2002, 2003).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긍정적 특성 중

의 하나인 공감의 압도집단에서 높은 수준을 나타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압도집단의 정서경험 특성 가운데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언급하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주요 변인들을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는 점이 다. 질문지의 경우 문항에 대한 객관적인 응답보다 사회적 바람직성에 따라 보고할 가능성이 있으며 정서경험 특성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도 주관적인 편파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심층면접이나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정보 수집이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교육 연한, 경제 수준 등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하지 않고, 개인의 정서경험 특성과 공감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따라서 연구대상자들의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결과를 해석하는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정서인식명확성, 정서강도, 공감의 연령차와 성차를 알아보았고 차이들이 발견되었지만, 이러한 결과를 단순히 연령차로 설명하기에는 동시대효과(cohort effect)가 존재하므로 이를 배제할 수 없다.

참고 문헌

- 김성은 (1997). 학생의 감정공명과 학업성적, 학급 내 사회성, 학교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성일 (1998). 부모의 수용과 청소년의 공감 발달. *청소년학연구*, 5(1), 21-51.
- 김영혜 (2003). 정서인식의 명확성, 정서의 수용과 정서적 지지, 그리고 심리적 안녕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주 (2005). 상위기분과 공감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민경환, 김지현, 황석현, 장승민 (1998) 성, 세대, 성격유형에 따른 정서 반응 양식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2(2), 119-140.
- 박성희 (2004). 공감학. 서울 : 학지사.
- 박인조, 김방실, 이양 (2002). 정서경험과 공감의 관계. *경상대학교 학생 생활연구* 소집, 28, 59-70.
- 서지연 (2003). 아동의 감정이입과 정서조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은아 (2002). 자신의 정서에 대한 자각, 공감, 조망수용 및 도움행동.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화경 (2001). 유아의 정서지능과 타인 감정추론과의 관계.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근원 (2004). 인지 및 정서 복잡성과 공감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연진영 (1986). 아동의 공감발달에 관한 연구. *가정문화연구*, 4, 7-31.

- 옥수정 (2001). 억압적 성격 성향자의 정서적 특성과 정서 조절 방략.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수정, 이훈구 (1997). Trait Meta-Mood Scale 의 타당화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 95-116.
- 이은순 공저 (1998). 청년기와 정서 현대청년심리학. 학문사.
- 이주일, 민경환 (1996). 정서지능 개념의 소개 및 연구 전망. *심리과학* 5(1), 67-84.
- 이주일, 황석현, 한정원, 민경환 (1997). 정서의 체험 및 표현성이 건강과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1), 117-140.
- 정봉교, 김지연 (2006). 공감, 정서와 동기 유형 및 심장반응. *한국심리학회지: 실험*, 18, 21-37.
- 조성은 (2005). 정서인식의 명확성, 정서강도, 정서주의력과 스트레스 대처 및 우울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요원, 이수정 (2004). 대학생의 정서인식의 개인차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건강*, 9(4), 887-901.
- 황석현, 민경환 (2000). The conceptualization and Validation of Emotional Complexity.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4(1), 263-284.
- Ann M. Kring, David A. Smith and John M. Neale. (1994). Individual Differences in Dispositional Expressivenes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Emotional Expressivity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934-949.
- Barnett, M. A., Howard, J. A., King, L. M., & Dino, G. A. (1982). Effect of inducing sadness about self or other on helping

behavior in high and low empathic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920-923.

Baron-Cohen, S., & Wheelwright, S. (2004). The empathy quotient: An investigation of adults with Asperger syndrome or high functioning autism, and normal sex differences,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 34, 163-175.

Beck, T. A., & Beck, R. W. (1972). Screening depressed patients in family practice: A rapid technis. *Postgraduate Medicin*, 52, 81-85.

Brewer, B. R. (1974). Relationships among personality, empathic ability and counselor effectivenes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rth Dakota.

Bruce E. Chlopan, Marianne L. McCain, Joyce L. Carbonell and Richard L. Hagen. (1985). Empathy: Review of Available Meas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635-653.

Bukarko, D., & Dachler, M. W. (2001). Self and value. In *Child Development. A Thematoc Approach* (4th ed.), 405-447, Boston: Houghton Mifflin Co.

C. Daniel Batson, Karen Sager, Eric Garst, Misook Kang, Kostia Rubchinsky and Karen Dawson. (1997). Is Empathy-Induced Helping Due to Self - Other Merg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495-509.

Changming Duan and Clara E. Hill. (1996). The Current State of

- Empathy Resear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 261-274.
- Clark, L. B. (1980). Empathy: A neglected topic in psychological research. *American Psychologist*, 35, 187-190.
- Davis, M. H.(1980).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 in empath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10, 85.
- Davis, M. H.(1983).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Evidence for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113-126.
- Davis, M. H., Hull J, G., Young, R. D., & Warren, G, G, (1987). Emotional reactions to dramatic film stimuli: The influence of cognitive and emotional empath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126-133.
- Davis, M. H. (1994). *Empathy: A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 Madison, WI: Brown & Benchmark.
- Deutsc H, F., & Madle, R.A.(1975). Empathy : Historic and current conceptualizations, measurement, and a cognitive theoretical perspective. *Human Development*, 18, 267-287.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Diener, E., Snadvik, E., & Larsen, R. J. (1985). Age and sex effects for emotional intensity. *Developmental Psychology*, 21, 542-546.

- Duan, C. (2000). Being empathic: The role of motivation to empathize and nature of target emotions. *Motivation and Emotion, 24*, 29-49.
- Duan, C. & Hill, C. E. (1996). The current state of empathy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43*, 261-274.
- Eisenberg, N. (1986). *Altruistic emotion, cognition, and behavior*. Hillsdale, NJ: Erlbaum.
- Eisenberg, N., & Strayer, J. (1987). Critical issues in the study of empathy. In N. Eisenberg, & J. Strayer (Eds.), *Empathy: A developmental perspectiv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mmons, R. A., & Colby, P. M. (1994). *Emotional styles, mood accuracy, and the experience of daily mood*. Unpublished manuscript.
- Frank Fujita, Ed Diener and Ed Sandvik. (1991). Gender Differences in Negative Affect and Well-Being: The Case for Emotional Intens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427-434.
- Gilles E. Gignac.. (2006). Self-reported emotional intelligence and life satisfaction Testing incremental predictive validity hypotheses vi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in a small samp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40*(8), 1569-1577.
- Giuliano, T. A., & Swinkels, A. (1992).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mood awareness scale. Poster presented at

the Centenni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Washinton, DC.

- Gohm, C. L., Oishi, S., Darlington, J., & Diener, E. (1998). Culture, parental conflict, parenral marital status, and the subjective well-being of young adul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 319-334.
- Gohm, C. L., (1999, June). *Typecasting by emotional experience : Hot, cool, cerebral, or overwhelmed*. Poster present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l Psychological Society, Denver, CO.
- Gohm, C. L., & Clore, G. L. (2000). Individual differences in emotional experience: Mapping available scales to process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6*, 679-697.
- Gohm, C. L., & Clore, G. L. (2002a). Affect as information: An individual difference approach. In L. Feldman Barret & P. Salovey (Eds.), *The wisdom in feeling: Psychological Process in emotional intelligence* (pp 89-113). New York: Guilford Press.
- Gohm, C. L., & Clore, G. L. (2002b). Four latent traits of emotional experience and their involvement in attributional style, coping, and well-being. *Cognition and Emotion, 16*, 495-518.
- Gohm, C. L. (2003). Mood regulation and emotional intelligence: Individual differen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3)*, 594-607.
- Goldstein, A. P., & Michaels, C. J. (1985). *Empathy: Development,*

training, and consequences, Hillsdale, NJ: Erlbaum.

- Grief, E. B., & Hogan, R. (1973). The theory and measurement of empath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0*, 280-284.
- James J. Gross and Oliver P. John. (1998). Mapping the Domain of Expressivity: Multimethod Evidence for a Hierarchical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70-191.
- Haddock, G., Zanna, M. P., & Esses, V. M. (1994). Mood and the expression of intergroup attitudes: The moderating role of affect intensity.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4*, 189-205.
- Heck, E. J., & Davis, C. S. (1973). Differential expressions of empathy in counseling analogu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0*, 101-104.
- Hoffman, M. L. (1982). Development of prosocial motivation : Empathy and guilt, In N. Eisenberg(Ed). *The development of prosocial behavior*. New York : Academoc Press.
- Hoffman, M L. (1984). Interaction of affect and cognition in empathy. In C. E. Izard, J. Kagan, & R. B. Zajonc (Eds.), *Emotions, Cognition, and behavio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gan, R. (1969). Development of empathy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3*, 307-316.
- Huth, P. K. B. (1979). *The effects of therapist anxiety and cognitive differentiation on empathic understanding and respond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Circle.

- Iannotti, R. J. (1985). Naturalistic and structured assessment of prosocial behavior in preschool children: The influence of empathy and perspective tak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1*, 46-55.
- Kagan, N. & Schneider, J. (1987). Toward the measurement of affective sensitivity.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5*, 459-464.
- Kohut, H. (1977). *The restoration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Kring, A. M. & Gordon, A. H. (1998). Sex difference in emotion: Expression, experience, and physi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686-703.
- Laura A. King and Robert A. Emmons. (1990)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864-877.
- Larsen, R. J. (1984). Theory and measurement of affect intensity as individual difference characteristic.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85*, 2297B. university Microfilms. No. 84-22112.
- Larsen, R. J., Diener, E., & Emmons, R. A. (1986). Affect intensity and reaction to daily life ev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803-814.
- Larsen, R. J., & Diener, E. (1987). Affect intensity as an individual

- difference characteristic : A review.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1*, 1-39.
- Larsen, R. J., & Scheffer, S. (1987). The influence of cognitive operations on physiological response to emotion-provoking stimuli. Unpublished study. Purdue University.
- Larsen, R. J., & Diener, E.(1987). Affect intensity as an individual difference characteristic: A review.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1*, 1-39.
- Leslie S. Greenberg and Jeremy D. Safran. (1989). Emotion in Psychotherapy. *American Psychologist, 44*, 19-29.
- Linda M. A., & Douglas J. T. (1982). Counselor Cognitive Complexity of Self - Reported Emotional Experience as a Predictor of Accurate Empathic Understand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9*, 534-537.
- Lutwak, N., & Hennessy, J. (1982). Conceptual systems functioning as a mediating factor in the development of counseling skill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9*, 256-260.
- Mackay, R. C., Hughes, J. R., & Carver, E. J. (1990). The measurement of empathy. In R. C. Mackay, J. R. Hughes, & E. J. Carver(Eds.), *Empathy in the helping relationship*. New York: Springer.
- Malatesta. C. Z., & Kalnok, M. (1984). Emotional experience in younger and older adults. *Journal of Gerontology, 39*, 301 - 308.
- Mayer, J. D., & Gaschke, Y. N. (1988). The experience and

meta-experience of m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102-111.

Mayer, J. D., & Stevens, A. A. (1994). An emerging understanding of the reflective (Meta-) experience of mood.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8, 351-373.

Mead, G. H. (1934).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Redmond, M. V. (1989). The function of empathy(decentering) in human relations. *Human Relations*, 42, 593-605.

Perry, W. B. (1981). Cognitive and ethical growth: The making of meaning. In A. Chickering (Ed.). *The modern American college*. San Francisco: Jossey-Bass.

Piaget, J. (1932). *The moral judgement of the child*. (rans.) London: Kegan Paul, Trench, Trubner, 1932.

Piaget, J., & Inhelder, B. (1969). *The Psychology of the child*. New York : Basic Books.

Richard Koestner, Carol Franz and Joel Weinberger. (1990). The Family Origins of Empathic Concern: A 26-Year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709-717.

Rogers, C. R.(1957).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of therapeutic personality chan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 95-103.

Salovey, P., & Mayer, J. D. (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 185-211.

- Salovey, P., Mayer, J. D., Goldman, S. L., Truvey, C., & Paifai, T. P. (1995). Emotional attention, clarity, and repair: Exploring emotional intelligence using the trait meta-mood scale. In Pennebaker, J. W. (Ed). *Emotion, Disclosure, and Health* 125-154, Washington, DC: APA.
- Sinnott, J. D. (1989a). Life-span relativistic postformal thought : Methodology and data from everyday problem-solving studies. In M. L. Commons, J. D. Sinnott, F. A. Richards, & C. Armon (Eds.), *Adult development, Vol. 1: Comparisons and applications of developmental models*. New York: Praeger.
- Swinkels, A., & Giuliano, T. A. (1995). The measurement and conceptualization of mood awareness: Attention directed toward one's mood stat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1*, 934-949.
- Trusty, J. G., & Watts, R. E. (2003). Using imaginary team members in reflecting "as if", *Journal of Constructivist Psychology, 16*, 335-340.

Abstract

The Relations of emotional clarity and emotional intensity to empathy

Park, Hye-young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clarity and emotional intensity to empathy. To obtain the data used in the analysis of this study the questionnaire was made to 386 persons including 220 undergraduates and 166 middle-aged adults in Seoul and Kyunggi do. In this study, Trait meta-mood scale, Affect intensity measure and Interpersonal reaction index scale were u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seemed to be difference in empathy with respect to gender and age. Young-aged adults tended to have the higher empathy level than middle-aged adults. And, Female tended to have the higher empathy level than male. Second, there was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emotional clarity, emotional intensity and empathy. There was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emotional clarity and cognitive empathy. And, There was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emotional intensity and emotional empathy. Third, among the subordinate factors of empathy, the perspective taking scores was high in the high emotional clarity group and the fantasy scores was in the high emotional intensity group. Personal distress score was high in the low emotional clarity group and the high emotional intensity group, respectively. Finally, subjects were grouped into four different emotional experience groups (hot, cerebral, overwhelmed, cold). Hot emotional experience group, characterized by combination of high emotional clarity and high emotional intensity, showed the highest level of perspective taking, fantasy, empathic concern. Overwhelmed emotional experience group, characterized by combination of low emotional clarity and high emotional intensity, showed the highest level of personal distress.

Last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study, and suggestions for the future study were discussed.

부 록

부록 1. 정서인식명확성 척도

부록 2. 정서강도 척도

부록 3. 공감 척도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는 귀하께서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정서경험에 대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질문에는 정답이 없으니 귀하의 상황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솔직한 답변은 본 연구에 있어 매우 소중한 자료가 되오니 바쁘시더라도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한문항도 빠짐없이 성실히 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문지 작성에 협조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발달심리 전공

지도교수 : 이 옥 경

연구자 : 박 혜 영

다음은 귀하의 신상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기입하는 난입니다.

해당되는 부분에 V 표시해주세요.

1. 성별 1)남 _____ 2)여 _____

2. 나이 만 _____ 세

◆ 정서인식명확성 척도

※ 문장을 읽고 평소 자신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정도에 V 표시해 주십시오

번호	내용	전혀 동의 하지 않는 다	별로 동의 하지 않는 다	중간 이다	어느 정도 동의 한다	정말 로 동의 한다
1	때로 나는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알 수가 없다.					
2	나는 내가 어떤 느낌을 갖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거의 없다.					
3	내가 무얼 느끼는지 알 수 가 없다.					
4	내 신념과 의견은 내 감정에 따라 늘 변하는 것 같다.					
5	나는 내가 사물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주의하곤 한다.					
6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항상 혼란스럽다.					
7	나는 쉽사리 내 감정들을 다룰 수 있다.					
8	때로 내 감정을 이해할 수 없다.					
9	나는 대개 내 느낌을 명확하게 안다.					
10	나는 보통 사물/일에 대한 나의 느낌을 알고 있다.					
11	나는 거의 항상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					
12	나는 내 느낌을 설명하는데 곤란을 느끼곤 한다.					
13	나는 보통 내 감정들에 대해 정확하게 느낀다.					
14	나는 내 느낌을 규정짓는 것이 때로는 힘들다.					
15	나는 결코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 확실한 적이 없다.					
16	바로 지금, 나는 내가 어떤 기분을 느끼고 있는지를 안다.					

◆ 정서강도 척도

※ 아래의 문항들은 전형적인 일상사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어진 빈칸에 V 표시 해주십시오.

번 호	내 용	전혀 동의 하지 않는 다	별로 동의 하지 않는 다	중 간 이 다	어 느 정 도 동 의 한 다	정 말 로 동 의 한 다
1	뭔가 어려운 일을 성취했을 때 기뻐하거나 기분이 고양됨을 느낀다.					
2	행복을 느낄 때 그것은 아주 강한 환희와 같다.					
3	나는 남들과 같이 있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					
4	거짓말을 할 때면 아주 기분이 나쁘다.					
5	작은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했을 때도 아주 기분이 좋다.					
6	내 감정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렬한 경향이 있다.					
7	내 행복한 기분은 너무 강렬해서 마치 천국에 있는 기분과 같다.					
8	너무 열정적이 되곤 한다.					
9	불가능해 보이던 일을 마쳤을 때 나는 희열을 느낀다.					
10	무언가 흥분되는 일을 기대할 때 내 심장은 마구 뛰다.					
11	슬픈 영화를 보고 굉장히 감동하곤 한다					
12	행복을 느낄 때 그것은 만사가 순조롭고 만족한 느낌에 가까울 뿐, 흥분되고 떨리는 것이 아니다.					
13	사람들 앞에서 처음 이야기 할 때, 내 음성은 마구 떨리고 심장은 마구 뛰다.					
14	좋은 일이 생기면 보통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기뻐한다.					
15	내 친구들은 내가 무척 감정적이라고 말할 것이다.					
16	내가 가장 좋아하는 기억들은 활기차고 열정적으로 느꼈던 시간보다는 만족스럽고 평화롭게 느꼈던 시간들이다.					
17	누군가 아주 심하게 다친 광경을 보면 난 크게 영향을 받는다.					
18	내가 기분이 좋을 때면, 단순히 좋은 기분에서 아주 행복한 기분으로 옮겨가는 것은 쉽다.					
19	‘조용하고 침착하다’로 나를 쉽게 표현할 수 있다.					

번 이	내 용	전혀 동의 하지 않는 다	별로 동의 하지 않는 다	중 간 이 다	어 느 정 도 동 의 한 다	정 말 로 동 의 한 다
20	내가 행복할 때 나는 기쁨으로 벅차오름을 느낀다.					
21	끔찍한 교통사고의 사진을 신문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도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22	행복할 때 나는 활기가 넘쳐흐르는 것처럼 느낀다.					
23	상을 받으면 너무 기뻐하는 경향이 있다.					
24	무엇인가 성공했을 때 나의 반응은 조용한 만족이다.					
25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나는 아주 강한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느낀다.					
26	나는 아주 힘든 시기에도 침착할 수 있다					
27	매사가 순조로울 때 나는 '세상 꼭대기에 서있는' 듯한 기분 이 든다.					
28	화가 났을 때에도 나는 여전히 이성적이고 과민반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9	내가 어떤 일을 매우 잘 했음을 알았을 때 흥분하고 기뻐하기 보다는 느긋하고 만족스러운 기분을 느낀다.					
30	내가 불안하다고 느낄 때 그 기분은 보통 굉장히 강하다.					
31	나는 나쁜 기분을 그리 강하게 느끼지 않는다.					
32	내가 어떤 것에 관해 흥분할 정도로 기분이 좋을 때에는 나는 그 기분을 모든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한다.					
33	내가 행복을 느낄 때 그것은 조용한 만족과 같다.					
34	내 친구들은 아마도 나를 항상 긴장해 있는 사람이라 말할 것 같다.					
35	행복을 느낄 때 나는 힘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다.					
36	죄책감을 느낄 때 그 감정은 아주 강렬하다.					
37	내가 느끼는 행복한 기분은 환희보다는 만족이라는 단어로 더 잘 묘사 될 수 있다.					
38	누군가 나를 칭찬하면 나는 너무 행복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다.					
39	불안하면 온 몸이 떨린다.					
40	나에게 있어 행복은 흥분의 도가니라기보다는 충만하고 내적 으로 침착하게 가라앉은 느낌에 더 가깝다.					

◆ 공감 척도

※ 다음 진술을 읽고 귀하의 의견을 나타내는 정도에 V표를 해주십시오.

번호	내용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중간이다	어느 정도 동의한다	정말로 동의한다
1	나는 남을 비난하기 전에 내가 만일 그 사람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느낄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노력한다.					
2	나는 어떤 문제에 대해 일단 내가 옳다고 확실히 믿으면 그 후로는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					
3	때때로 나는 친구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것인가를 상상해 봄으로써 그들을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4	나는 모든 질문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믿고 두 측면 모두를 살펴보려고 노력한다.					
5	나는 때때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태를 보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					
6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살펴보려고 노력한다.					
7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 나는 대개 잠시나마 그의 입장에서 보려고 노력한다.					
8	나는 재미있는 이야기나 소설을 읽을 때 그 이야기 속의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어떻게 상상해 본다.					
9	나는 소설을 읽을 때 그 이야기 속의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어떻게 상상해 본다.					
10	영화나 연극을 볼 때 나는 대개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영화나 연극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때는 거의 없다.					
11	나는 연극이나 영화를 보면서 내가 마치 주인공인 것처럼 느끼는 적이 있다.					
12	나는 내게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들에 대하여 비교적 규칙적으로 백일몽을 꾸거나 상상을 한다.					
13	나는 좋은 책이나 영화에 깊이 빠져드는 일이 드물다.					
14	좋은 영화를 볼 때 나는 쉽게 중요 인물이 놓인 입장에 선다.					

번 호	내 용	전혀 동의 하지 않는 다	별로 동의 하지 않는 다	중간 이다	어느 정도 동의 한다	정 말 동 의 한 다
15	누군가가 이용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 나는 그를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16	나는 누군가가 억울하게 취급당하는 것을 보아도 그들에게 동정심이 별로 일지 않는 때가 더러 있다.					
17	나보다 불행한 사람들을 볼 때 자주 그를 염려하는 따뜻한 감정이 일어난다.					
18	나는 스스로를 매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9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 그들에 대해 별로 마음 아파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20	나는 다른 사람들의 불행이 나를 크게 혼란에 빠뜨리는 적은 별로 없다.					
21	나는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자주 깊이 감동한다.					
22	나는 긴급 상황에서 절실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보면 내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 사람 일에 빠져버린다.					
23	나는 가끔 감정적으로 흔들림을 심하게 느끼는 상황에서 해 봤자 소용없다는 무력감을 느낀다.					
24	긴급 상황에 놓이게 되면 걱정이 되고 불안하다.					
25	나는 대개 위급한 상황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행동한다.					
26	나는 긴장된 상황 속에 있는 것이 두렵다.					
27	나는 누가 부상당하는 것을 봐도 차분한 마음으로 있을 수 있다					
28	나는 비상시에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는 편이다.					

설문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